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모잠비크








Republic of Mozambique

2021년 6월 30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799천 km <sup>2</sup> 	<b>인구</b> 3,199만명 (2020년 기준)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중립노선 
<b>GDP</b> 143.9억 달러 (2020년 기준) 	<b>1인당GDP</b> 449.6 달러 (2020년 기준) 	<b>통화단위</b> Metical (MT) 	<b>평균환율(U\$기준)</b> 69.47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약 3,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와 접경하고 있음.
-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알루미늄·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2017년 이후 천연가스 개발지역인 북부의 카보 델가도 주에서 IS 무장단체가 활동하며 치안이 크게 악화되어 대규모의 실항민이 발생하고 주요 LNG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음.
- 46년째 장기 집권 중인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이 2019년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하여 정치기반이 강화되었으며, Filipe Nyusi 대통령 또한 연임에 성공하여 2025년 1월까지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19년 FRELIMO와 8월 반정부 조직인 모잠비크 국민저항(RENAMO)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국내정치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 2016년 미공개 정부보증부 채무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폭로된 후 IMF, 원조 공여국 등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IMF 등으로부터의 신규자금 지원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3. 8. 11 수교 (북한과는 1975. 6. 25)

**주요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17),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18)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63,545	61,745	72,573	신변잡화, 기타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수입	235,577	201,332	135,431	석탄, 동제품, 기호식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8건, 42,962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8	3.7	3.4	2.3	-0.5
소비자물가상승률	19.9	15.1	3.9	2.8	3.1
재정수지/GDP	-5.5	-2.9	-6.8	-0.2	-5.4

자료: IMF

### 2015년까지 6~8%대의 높은 경제성장 이후 2016년부터 성장세 하락

- 모잠비크 경제는 1994년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정부의 거시경제 개혁정책 추진, 원자재 국제시장 활황, 대외원조 수혜 확대, 대규모 개발사업(가스전, 탄광, 인프라 등) 등이 이어진 데 힘입어 2015년까지 평균 6~8%대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음.
- 이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감소(자원개발)뿐 아니라, 2016년 미공개 정부보증부 채권이 국제적으로 폭로된 후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원조공여국들은 모잠비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원조를 중단하였으며, 메티칼화 가치 하락, 자연재해(대홍수·사이클론)에 따른 농업 피해 등의 악재가 겹쳐 2016~19년 경제성장률은 2~3%대로 크게 하락하였음.

### 2020년 경제는 광업 부문의 부진, 외국인투자 지연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2020년 경제는 2020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석탄·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 및 광물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광업 부문의 부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 및 관광업 위축, 300억 달러 규모의 ExxonMobil의 LNG 천연가스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FID) 연기 등으로 인해 -0.5%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모잠비크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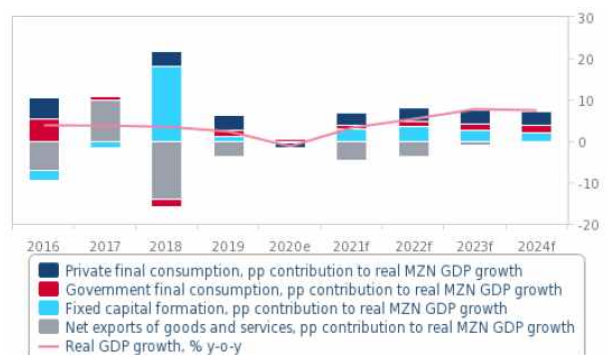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그림 2] GDP 구성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 및 전망

단위: %



자료: Fitch Solutions

## 국내경제

### 2021년에는 민간소비 회복과 광업 부문의 투자 증대로 2% 내외의 플러스 경제성장 전망

- 2021년 모잠비크 경제는 대규모 LNG 프로젝트 투자가 지연(프랑스 Total사의 불가항력 선언)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령 및 사이클론 엘로이즈(2021.1월)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내수시장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2020년 대비 민간소비 회복(3월 8일 백신 접종 개시) 및 광업 부문의 투자 확대 등으로 2% 내외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기관별 모잠비크 2021~22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	IMF(4월)	세계은행(6월)	EIU(6월)	AfDB(3월)	Fitch Solutions(6월)	IHS Markit(6월)
2021년	2.1	1.7	2.4	2.3	2.8	1.6
2022년	4.7	4.1	4.2	4.5	4.4	3.8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이후 3%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

- 2017년 목표물가 제도 도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이후 점차 안정되어 2018년 이후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월 정책금리 도입 후 최초로 금리 인상 단행

- 2021년 1월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저성장 중에도 연초 메티칼화 가치 하락, 필수재 가격 인상, 북부 지역의 치안 불안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여 정책금리를 10.25%에서 13.25%로 300bp 인상하였음. 이는 2017년 정책금리 도입 후 최초의 금리 인상임.
- EIU와 IHS Markit은 중앙은행의 신용공여 감소 우려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조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Fitch Solutions는 물가안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년 중 약 100bp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함.

### 보건·의료 및 방위 관련 정부지출 지속

-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카보 델가도 주 테러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군사 대응 등으로 전년(-0.2%) 대비 크게 상승(-5.4%)하였으나 5개년(2014~18년) 평균(-6.4%)과 비교해서는 양호한 수준임.
- 2021년에도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 지출과 카보 델가도 지역에서의 방위비 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투자 축소가 지출증가분을 상쇄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4.1%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상수지	-3,846	-2,586	-4,501	-3,022	-3,813
경상수지/GDP	-32.2	-19.7	-30.6	-19.9	-26.5
상품수지	-1,405	-498	-973	-2,084	-2,294
상품수출	3,328	4,725	5,196	4,669	3,588
상품수입	4,733	5,223	6,169	6,753	5,883
외환보유액	1,948	3,117	3,015	3,650	3,805
총외채	19,451	18,995	23,050	24,904	29,716
총외채잔액/GDP	163.0	144.5	156.7	163.9	206.6
D.S.R.	27.8	14.5	14.3	14.2	28.9

자료: IMF, EIU, OECD

### 불균형한 교역조건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지속

- 모잠비크의 교역조건은 매우 불균형한 상황으로, 수출은 광물(석탄, 알루미늄) 및 농수산물(캐슈너트, 새우)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고 국제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1차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기계류, 건설자재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무역수지는 GDP 대비 20~30% 수준의 극심한 적자를 겪고 있음.

### 주요 수출입 품목과 품목별 비중(2020.1~3분기 누적)

구분	주요 수출입 품목 및 비중
상품수출	알루미늄 바(bar) 26%, 석탄 19%, 전력 14%, 중사(重砂) 6%, 담배 4%, 알루미늄 케이블 2%, 설탕 1%
상품수입	기계류 17%, 연료 10%, 건설자재 9%, 알루미늄 원료 5%, 자동차 4%, 비료 1%

\* 자료: 모잠비크 중앙은행(2020.12월 보고서)

-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석탄, 알루미늄 국제가격 하락 및 수출수요 감소로 원자재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LNG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자본재 수입과 경기 위축으로 연료 수입도 동반 감소하였음.
-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한 세계경기 회복이 모잠비크의 주요 수출품(알루미늄, 석탄)의 국제가격 인상과 수출수요 증가로 이어져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약 2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수입액은 Total社의 LNG 사업 중단에 따른 건설자재 수요 감소 등으로 약 14.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EIU).
- 다만, 장기적으로 모잠비크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대규모 LNG 프로젝트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외채상환능력

### 과도한 외채규모 대비 외채상환 능력 부족

- 2016년 20억 달러 규모의 미공개 정부보증부 채무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밝혀진 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하락하여 IMF, 주요 공여국 등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 및 원조 제공이 중단되었음. 아울러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메티칼화 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모잠비크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카보 델가도 지역의 치안 불안에 따른 대규모 LNG 프로젝트 지연과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이 겹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도 감소하였음.
- 2020년 4월 IMF의 채무지속가능보고서에서 모잠비크는 '채무곤경' 상태의 채무위험등급을 부여받음.

[표 1]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평균환율 추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DI (백만 달러)	3,867	3,093	2,293	2,703	2,212	2,337
평균환율 (미달러 대비)	39.98	63.06	63.58	60.33	62.55	69.47

자료: UNCTAD, IMF

- 다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IMF, 세계은행 및 원조 공여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잠비크에 긴급성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G20의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에 따라 파리클럽 채권국들은 모잠비크에 대해 2020년 5월 말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어 단기유동성이 개선되었으나, 외부자금 추가 유입이나 채무상환 유예 없이는 유동성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세계은행과 파리클럽에 따르면, 파리클럽 회원국과 G20은 채무상환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
- IMF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09억 달러 규모의 신속신용제도(Rapid Credit Facility)를,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72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식 지원을 각각 모잠비크에 제공하였음.
- 2020년 말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5.0개월 수준인 38.05억 달러로 현재 심각한 외환 부족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나, GDP의 20~30%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과도한 외채(GDP의 206.6%) 및 수출액 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DSR 28.9%) 상황을 고려 시 외채상환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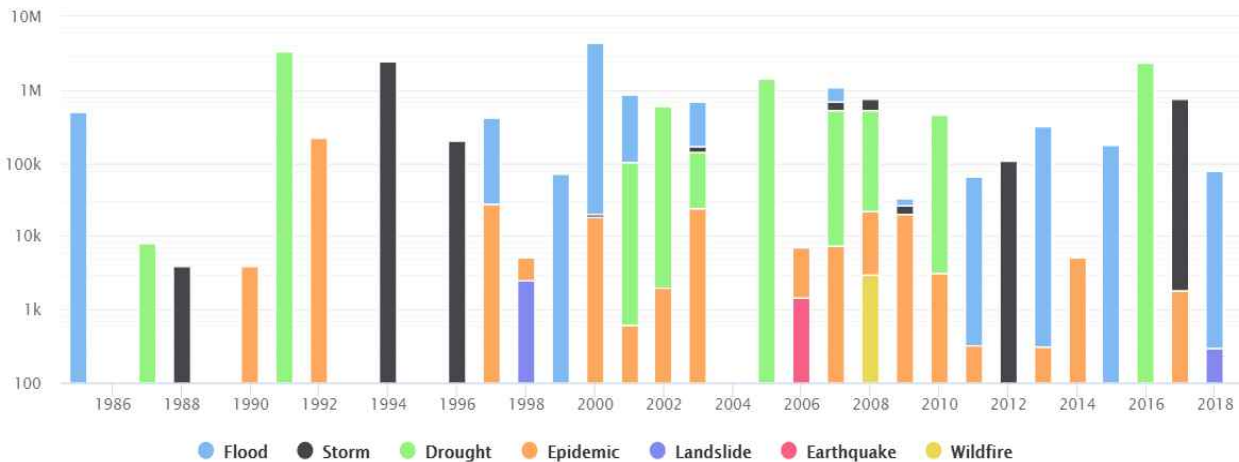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사이클론,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

- 농업은 모잠비크 경제의 주된 산업으로 2020년 기준 GDP의 30.1%(EIU) 및 노동인구의 70.3%(UNDP)를 점유하고 있으나 농업 인프라 부족, 재해관리 능력 부족, 높은 빈곤율 등으로 가뭄, 사이클론,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이는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임.
- 2019년에는 사이클론 '이다이'(3월)와 '케네스'(4월)가 각각 중부와 북부 지역을 강타하여 약 48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파괴되었으며, 최소 650여명(이다이 602명, 케네스 45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음.
- 2020년 12월 열대성 폭풍 '찰레인'(중부)이, 2021년 1월 사이클론 엘로이즈(중부)가 연이어 강타하였으며, 엘로이즈로 인해 약 13.7만 헥타르(총 농경지의 2.8% 규모)의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이다이로 발생한 9만 여명의 실항민들의 임시 거처가 파괴되며, 이재민들이 이중고를 겪은 바 있음.

[그림 4] 1985-18년 간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 종류 및 이에 따른 피해 인구 수

단위: 인구 수



자료: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 성장잠재력

### 이슬람 테러단체에 의한 대규모 LNG 투자 지역의 치안 악화 및 그로 인한 사업 지연

- 모잠비크는 천연가스와 더불어 석탄,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탄탈럼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며,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은 모잠비크에서 대규모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옴.
  - 2019년 기준 매장량은 흑연 2,500만 톤, 티타늄(티탄철석) 140만 톤, 티타늄(금홍석) 88만 톤, 지르코늄 180만 톤으로 추정됨(U.S. Geological Survey).
  - 한편, 천연가스 개발은 모잠비크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북부 로부마 분지(Rovuma Basin)에 매장된 천연가스 자원은 100~200조 ft<sup>3</sup>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Moody's).
  - EIU에 따르면 코랄 가스전에서 현재 Eni(이탈리아)가 건설 중인 소규모 해상 프로젝트에서 2022년 말부터 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천연가스 개발 지역인 북부의 카보 델가도 주에서 2017년 10월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테러가 발생하여 치안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테러 반경 확대, 현장 직원 피해 사례 발생, 육·해상 교통 차단 등으로 LNG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Area 1 사업주인 프랑스의 에너지기업 Total은 LNG 사업지의 보안 강화를 위해 모잠비크 정부와 2020년 8월 LNG 사업 활동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공동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나, 2021년 3월 사업지 인근 Palma市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결국 4월 26일 Area 1 사업(2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하였음.
  - EIU는 북부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한 대외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2023년 중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함.
- \* 과거의 식민 종주국인 포르투갈은 모잠비크 군인의 훈련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음.
- 특히, Area 4와 Coral 프로젝트에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Area 1 LNG 액화플랜트 건설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2020년 12월 계약체결)이고, 국내 조선사가 Area 1과 Coral 프로젝트 LNG 운반선을 수주한 바 있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지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침.

[표 3] 모잠비크 내 주요 LNG 프로젝트

사업명	사업주	최종투자결정	생산량(추정)	개발현황	EIU 전망
Area 1	Total SA(26.5%), Mitsui E&P(20%), 모잠비크 석유공사(Empresa Nacional de Hidrocarbonetos, 15%), ONGC Videsh(10%), Beas Rovuma Energy (10%), BPRL Ventures (10%), PTTEP(8.5%)	'19년 6월	연 12.9백만 톤	중단	2023년 중 건설 재개 예상
Area 4	Mozambique Rovuma Venture*(70%), Galp(10%), 한국가스공사(10%), 모잠비크 석유공사(10%)	연기	연 15.2백만 톤	중단	2024년 착공 예상
Coral	Eni(50%), China National Oil/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20%), 모잠비크 석유공사(10%), Galp(10%), 한국가스공사(10%)	'17년 6월	연 3.4백만 톤	진행 중	2022년 말 생산 개시 예상

\* ExxonMobil, Eni,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합작회사  
자료: EIU



## 성장잠재력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개발이 필요

- 모잠비크는 UN이 지정하는 최빈국<sup>1)</sup>으로, UNDP에 따르면 인구 62.9%의 일일 소득이 1.9달러(PPP 기준)를 넘지 못하고, 인구의 46.1%가 국가빈곤선을 하회하는 등 대다수 국민의 생활조건이 열악한 상황임.
- 2019년 UNDP 인간개발지수(HDI)<sup>2)</sup>에서 모잠비크는 0.456(181위/189개국)을 기록, 1990년(0.227)에 비해 기대수명(15.6년 ↑), 기대 교육기간(6.2년 ↑), 평균 교육기간(2.7년 ↑), 소득수준(172.7% ↑) 모두 증가하였으나 인력 개발수준은 여전히 사하라 이남 국가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특히, 15~49세 인구의 12.6%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 또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15~24세 젊은층이 17.7%이고,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해독율이 60.7%에 불과하여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sup>3)</sup>.

[표 4] 2019년 모잠비크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HDI 구성요소

구 분	HDI 지수	HDI 순위	기대수명	기대교육기간	평균교육기간	1인당 GNI (2017 PPP US\$)
모잠비크	0.456	181	60.9	10.0	3.5	1,25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547	-	61.5	10.1	5.8	3,686

자료: UNDP

## 정책성과

### 2015~35년 국가경제개발전략의 추진 성과는 미미한 수준

- 모잠비크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 및 산업 육성·다변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2014년 국가경제개발전략(2015~35년)을 수립하였음.
- 특히,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수익을 산업화에 활용코자 하며, 인적자원, 인프라, 혁신 및 기술, 제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코자 함. 주요 육성 목표 산업은 농업, 어업, 제조업, 광업, 관광업임<sup>4)</sup>.
- 그러나, 인프라 등의 투자 지연뿐 아니라 천연가스 개발 관련 전방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어 경제구조의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가 LNG 부문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집중하더라도, 카보 델가도 지역의 정정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LNG 투자 지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경제개발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치안 강화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고자 2023년 까지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에서 3년에 한 번씩 결정(2021년 5월 발간 보고서 기준)

2) 기대수명(평균수명), 교육 수준(취학연령의 기대 교육기간,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교육기간), 소득수준(1인당 GNI)을 기준으로 산정

3) UN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MOZ> (접속일자: 2021.5.20.)

4) AfDB. 2018. Mozambique Country Strategy Paper 2018-2022 Annex X – Country Strategic and Planning System

## 정치안정

###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이 1975년부터 장기 집권 중

- 집권 여당인 모잠비크 해방전선(Mozambican Liberation Front: FRELIMO)은 1975년 모잠비크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 Filipe Nyusi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6년간 장기 집권 중임.
- 2015년 1월 취임한 FRELIMO 소속 Nyusi 대통령은 2019년 10월 1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2020년 1월 15일 2기 행정부 임기를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집권할 예정이다.

\* 대통령 선거에서 Filipe Nyusi는 73%를 득표하며 제1야당인 모잠비크 국민저항(Mozambican National Resistance: RENAMO) 소속 Ossufo Momade(21%)와 모잠비크 민주운동(MDM) 소속 Daviz Simango(4%)를 크게 앞섰음.

- 다만, RENAMO와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공개 부채 스캔들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 차이로 FRELIMO 내부에 분열이 존재하고 있음.
- 2021년 1월 Nyusi 대통령에 대한 미공개 부채 스캔들 관련 부패 혐의는 Nyusi 대통령이 그간 당내 부패 척결을 위해 해온 노력에 제약 요인이 됨.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FRELIMO가 압승하여 기존 의석 수보다 40석을 더 확보함으로써 여당의 정치기반이 강화되고, Nyusi 2기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음.

\* 의회는 단원제이며 250석 중 FRELIMO가 184석, RENAMO가 60석, MDM이 6석을 획득

- 한편, 제1야당인 RENAMO는 기존 의석 수에서 29석이 줄어들어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으며, 내부 분란으로 당내 결속력도 약해진 상황임.

### FRELIMO와 RENAMO 간의 잠재적 갈등은 여전히 상존

- FRELIMO와 RENAMO는 1977~92년 진행되었던 모잠비크 내전의 당사자들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중북부 지역 자치권 요구를 거부당한 RENAMO가 민병대를 구성하여 무장 투쟁을 벌이면서 양측 간에 장기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음.
- 2016년 12월 2개월 간의 휴전 합의, 2017년 무기한 휴전 합의 등의 노력 끝에 2019년 8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2020년 6월 RENAMO 前반군 일부 대원들이 무장 해제·해산하고 정부군에 편입되며 양측 간의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다만, 어느 측으로부터의 공식적인 평화협정 파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상호 불신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EIU에 따르면 前게릴라 단원(반군) 약 5,200명 중 1,500명이 해산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미 반군 세력이 많이 축소되었으나,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일부 반군 세력은 RENAMO Military Junta라는 분파를 조직하여 중부 지역에서 활동 중임.

## 사회안정

### 부의 재분배 실패로 대다수 국민은 열악한 삶을 영위

- 모잠비크는 1992년 내전 종식 이후 199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2%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 하였으나, 만연한 부정부패, 저부가가치 원자재 수출에의 과도한 경제의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금 회수, 국내산업 육성 부진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고성장 시기의 부(wealth)가 사회 전반에 재분배되지 못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 UNDP Human Development Index(HDI)에 따르면 모잠비크는 상위 1% 계층이 세전소득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11.8%에 불과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으며 계층 간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2019년 기준 총인구 대비 전력보급률(CIA)은 35%(도시 57%, 지방 22%)이고, 인터넷 사용자(UNDP)는 총인구의 10%에 못 미치고 있음. 한편, 비위생적 물·위생시설 서비스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27.6명으로 높아 대다수 국민이 열악한 환경에 놓임.
- 특히, 홍수, 사이클론 등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2019년 사이클론 이다이.케네스, 2020년 열대성 폭풍 찰레인, 2021년 사이클론 엘로이즈가 중·북부 지역을 강타함.
- UNDP에 따르면, 노동가능인구 대비 실업률은 3.2%, 젊은층(15~24세)의 실업률은 6.9%로 실업률 자체는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전체 일자리의 83.1%가 취약한 상태이며, 젊은층(15~24세)의 17.7%가 학교 또는 직장 외 숙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임.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1년 3월 보고서에서 모잠비크에 대한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부여하였으며, ESG 요소가 모잠비크 정부채 신용등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환경: 4등급)**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은 1차산업이며, 이중 생계형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관개 인프라와 농업기술 부족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함.
- **(사회: 5등급)** 기본적 공공 서비스, 보건, 안전 등의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모잠비크 인구가 국토 전역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임. 한편, 이슬람 무장세력 공격이 잦은 북부 지역에서의 치안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는 빈곤, 실업, 저개발을 들 수 있음.
- **(지배구조: 5등급)** 2016년 미공개 정부보증부 부채 적발 및 낮은 세계 거버넌스(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점수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금융 관리·보고 등의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사회·환경적 충격에 대한 회복능력 및 위험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총 107개국) 중 5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는 모잠비크 포함 총 20개국임.

## 사회안정

### 이슬람 무장단체 활동으로 카보 델가도 주의 치안 크게 악화

- 2017년 10월 북부 카보 델가도 주<sup>5)</sup>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1년 6월 13일까지 895건의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민간인 1,420명 포함 2,887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sup>6)</sup>.

- 2021년 6월 모잠비크 상공회의소는 테러로 인해 2017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55,80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카보 델가도 주의 경제적 피해액은 2.5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힘.

\* 2017년 10월 5일 신원을 알 수 없는 30명의 무장세력이 Mocimboa da Praia 지구 사령부, Auazi 지구 및 천연 자원 및 환경보호국 제2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 무장세력 3명 및 경찰 2명이 사망하였음. 테러가 발생한 Mocimboa항은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대인 Rovuma 광구와 가장 인접한 상업 항구임.

- IHS Markit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2017년 5월 소탕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Jabha East Africa)이 모잠비크 북부 지역\*과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잠입하여 이들 세력에 의해 테러가 발생<sup>7)</sup>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모잠비크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 무슬림 대부분이 카보 델가도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내전(1977~92년) 중 카보 델가도 주민과 탄자니아 남부 거주인들 간의 교류(결혼, 사업)가 활발하였음.

- 한편, 모잠비크 경찰 당국은 무장단체의 주요 목표가 모잠비크 북부와 탄자니아 남부 지역에 걸쳐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Palma 지역의 불안 상황을 조성하고 천연가스 개발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실제로 3월 24일 Palma 지역의 무장단체 공격(Total 외국인 관계자 사망) 이후, Total은 Afungi 반도에서 직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불가항력 선언 후 사업을 중단한 상황임.

- 이들은 불법 거래(루비, 금, 목재, 상아 등)\*에 따른 자금 탈취와 마약 거래로 얻은 소득 일부를 이용하여,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젊은이들을 고임금을 매개로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

\* 정부가 무장단체 대응 및 치안 유지를 위해 고용한 남아공 민간군사기업인 Dyck Advisory Group(DAG) 대표는 2020년 7월 소탕 작정 과정에서 상아, 루비, 에메랄드 밀수에 종사하는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카보 델가도를 통해 동아프리카 남북을 연결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마약(헤로인) 밀수 루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음.

\*\* 카보 델가도 지역의 빈곤율은 53%로 모잠비크 평균(43%) 대비 높음.

5) 우리나라 정부는 2018.3.2.자에 카보 델가도 주에 대해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로, 2018.12.18.자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여행경보단계를 각각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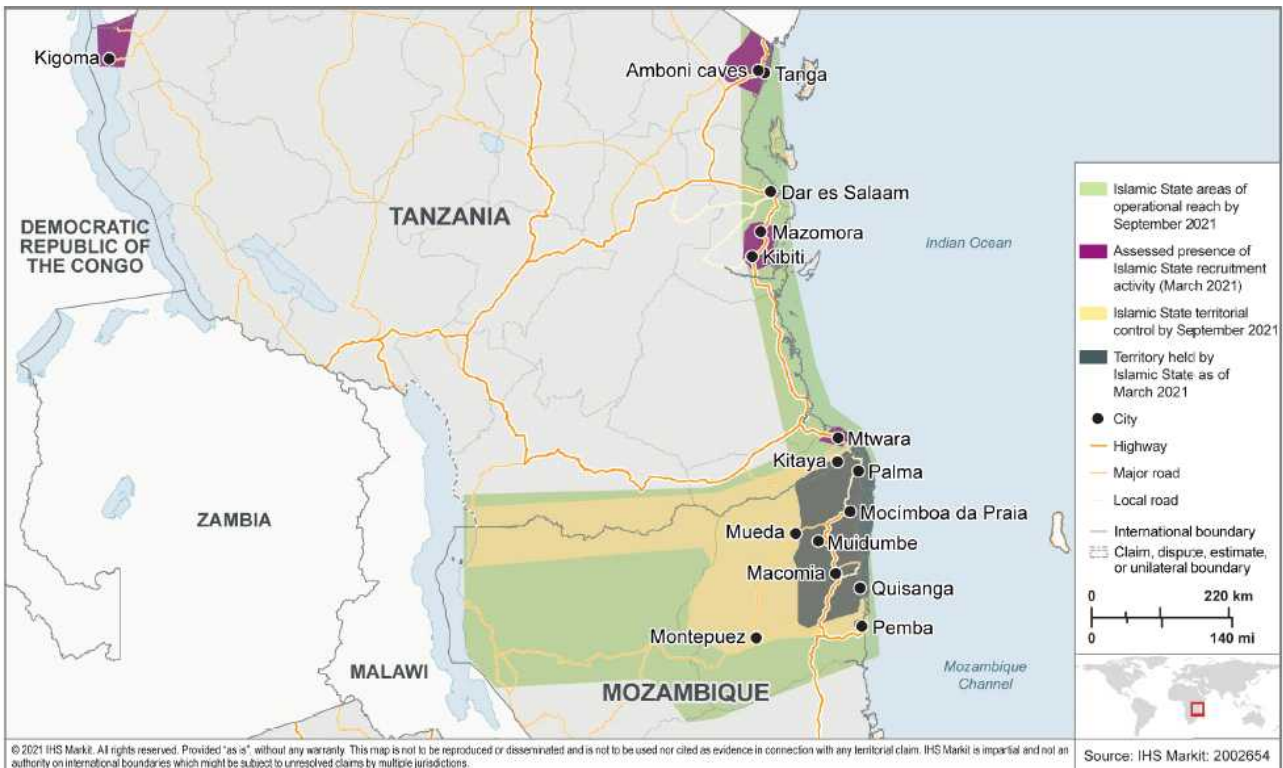
6)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2021.6.16.자 주간 보고서

7) 2018년 10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안보 위협, 살인, 불법 무기 소지, 반란 선동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약 120명에 달하는 피고인 중 일부가 탄자니아, 부룬디, 소말리아 국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편, 남아공 경찰청이 남아공 국적자 100여 명이 재정적 지원 등으로 카보 델가도 지역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임

## 사회안정

- 모잠비크 정부는 이슬람 무장단체에의 대응을 위해 민간 군사기업(DAG) 및 민병대와 연합작전을 펼치는 동시에 포르투갈과 미국으로부터 군사훈련 지원을 받고 있으나, 무장단체가 이미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북부 지역의 정정불안 사태는 당분간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모잠비크 정부는 북부 지역 경제개발<sup>8)</sup> 추진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개발은 단기간 내 달성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IHS Markit은 2021년 4월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안보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슬람 무장세력은 2021년 9월까지 모잠비크 북부의 일부 지역을 점령([그림 5] 노란색 부분)하고 세력을 확장([그림 5] 녹색 부분)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림 5] 이슬람 무장단체의 세력 확장 예상 범위



8) 2020년 8월 31일 정부는 북부통합개발청(ADIN)을 발족하여, 북부 지역의 통합개발과 청년·여성을 위한 고용 창출 및 직업교육 실시, 국내 피난민 정착 및 테러 공격에 따른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025년까지 4억 달러 모금을 추진 중임.

## 국제관계

### 미국, 포르투갈, 중국 등 주요 협력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 모잠비크는 오랜 우방국인 미국과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 아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식민 종주국이었던 포르투갈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카보 델가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모잠비크에 군인을 파병하여 현지 군인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도로, 건설, 중사(重砂)<sup>9)</sup> 탐사, 광산, 전력 등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잠비크의 대규모 영농업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의 고금리 차관 도입으로 외채부담 가중, 중국 기술자 및 노동자들의 현지 진출로 양질의 현지 일자리 감소 등)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하여 모잠비크 국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는 1992년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평화·안보 강화, 경제 성장, 빈곤 감축,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지역통합, 남부 지역 차원의 인프라 연결 등 공동의 목표 아래 설립<sup>\*</sup>되었으며 현재 16개국<sup>\*\*</sup>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모잠비크가 SADC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SADC 자유무역협정(1996년 체결, 2000년 발효), SADC-EU 경제동반자협정(2016년 체결, 2018년 발효) 등임.
  - \* SADC의 전신은 남부 아프리카 개발 조정회의(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임.
  - \*\* 모잠비크,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이셸, 코모로
- 모잠비크는 대부분의 SADC 회원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접경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한 폭력 사태<sup>10)</sup>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립 이후 시기부터 협력관계를 다져온 탄자니아와도 2010년 유니티 브릿지 개통(Rovuma 강) 등에 따른 무역 증가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임. 한편, 짐바브웨와는 2000년 이후 불법 이주민 유입에 따른 갈등 요소가 있음.
- 한편, 카보 델가도 지역에 대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개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사적 갈등 발생 가능성 우려 등의 입장 차이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탄자니아나 짐바브웨와 같이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9) 하천 바닥의 퇴적물 하부에 쌓인 '무거운 모래'. 집수분지에 분포하는 중금속 자원 탐사에 유용하게 쓰임.

10) 취업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남아공 노동시장에 인접국들로부터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남아공 국내에서 외국인 혐오가 고조되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1984년 이후 총 9차례에 걸친 파리클럽 채무 리스케줄링 경험 (현재 채무상환 유예 중)

- 모잠비크는 파리클럽으로부터 1984년 이후 9차례(금번 유예 포함)에 걸쳐 리스케줄링과 외채탕감을 받음. 파리클럽<sup>11)</sup>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모잠비크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 채무액은 총 10.27억 달러로 이중 ODA 채무액 8.12억 달러, 그 외 채무액 2.15억 달러임.
- 또한, 파리클럽과 G20는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통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모잠비크에게 채무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었으며, 2021년 4월 원리금 상환 유예를 금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음.

### IMF-세계은행의 HIPC 및 MDRI를 통한 외채탕감 수혜

- 모잠비크는 IMF와 세계은행의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HIPC) 및 다자채무 탕감 프로그램(MDRI)을 통해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2018년 8월 말 기준 각각 43억 달러 및 19.64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은 경험이 있음.
- 2021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31.58억 달러(단기 0.16억 달러, 중장기 31.42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는 없음. 다만, 2021년 3월 22일 기준 상업은행 앞으로 일부 연체가 있으며, 브라질 앞 연체(128백만 달러) 처리 방안에 대해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억 달러 규모의 미공개 정부보증부 대외채무 발각으로 모잠비크 정부의 신뢰 상실

- 모잠비크 정부가 2011~14년 중 국영기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결과 발생한 미공개 정부보증부 대외채무<sup>12)</sup>(유로본드, 대출)의 존재가 2016년에 밝혀지자, IMF, 세계은행, 원조 공여국 등은 모잠비크에 대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 지원, 원조(직접 예산 지원 등) 등을 전면 중단함(단, 코로나19 등 긴급성 자금 지원, 기 승인 사업자금, 기술 지원은 제공 중).
- 이에 모잠비크 정부는 2017년 1월 18일로 예정된 국채 이자 지급의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으며, 2019년 10월 대주단과의 채무재조정 최종 합의 이전까지 2023년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채무상환 태도가 불량하였음.
- IMF의 중장기 프로그램 재개는 다른 공여국들의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이나, 모잠비크의 미공개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해결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IMF의 신규 프로그램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6~17년 모잠비크 외채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자료 미비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11) 파리클럽은 참고용 자료로 해당 사이트에 매년 말 기준 채무국별 파리클럽 회원국 앞 채무 잔액을 게시하고 있음.

12) 2013년 국영수산기업인 EMATUM은 참치잡이 어선 및 해상감시선 구입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 조건으로 8.5억 달러의 유로본드(일명 튜나본드)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5억 달러를 어선이 아닌 해양경비선 등 군용 장비 매입에 사용되었으며, 이후 2016년 3월 튜나본드 잔액 6.97억 달러를 2023년 만기 도래 국채(액면가의 80% 조건)와 교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 한편, 2013~14년 모잠비크 정부국 산하 국영기업 Proindicus(6.2억 달러)와 Mozambique Asset Management(5.4억 대출) 앞 대출 자금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보증부 형태로 군수용품 매입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으며, 2011~14년 중 차입목적이 불분명한 2.2억 달러의 대외차입 존재도 발각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1.06)	7등급 (2020.06)
Moody's	Caa2 (2021.03)	Caa2 (2020.09)
Fitch	CCC (2020.12)	CCC (2020.07)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9년 유로본드 채무재조정 최종 합의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 후 유지 중

- 모잠비크 정부가 대주단과 유로본드(MOZAM) 채무재조정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Moody's는 2019년 9월 모잠비크 신용등급을 Caa3에서 Caa2로, Fitch는 12월 RD에서 CCC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Moody's는 모잠비크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인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 및 높은 양허성 비율에 따른 낮은 이자 상환부담은 긍정적 요소로, GDP의 110% 수준의 대규모 공적채무(대부분 외채),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 경상수지 적자와 유동성 부담은 부정적 요소로 꼽음.
- Fitch는 2020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 되고 공적채무 규모가 큰 가운데 Proindicus 및 Mozambique Asset Management(MAM) 채무에 대한 대주단과의 합의가 담보 상태에 놓여 여전히 모잠비크 정부의 자금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였음.
- 2016년 이후 Proindicus와 MAM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런던 법원에서 정부보증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 법정 공방이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2020년 5월 모잠비크 헌법재판소는 3개 기업이 빌린 대출은 헌법상 무효이며, 모잠비크 정부는 부채상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그럼에도 튜나본드는 국채로 전환된 후 현재 상환 중임).

- 2020년 모잠비크 경제는 광업 부문의 부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ExxonMobil의 LNG 천연가스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 연기 등으로 -0.5% 역성장하였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3.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GDP의 20~30% 규모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공개 정부보증부 채무가 국제적으로 밝혀진 후 IMF, 주요 공여국 등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감소하고 있어, 모잠비크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집권 여당인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이 46년 간 장기 집권 중인 가운데 2019년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FRELIMO 소속 Filipe Nyusi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19년 8월 FRELIMO와 모잠비크 국민전선(RENAMO)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정치적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음.
- 인구 62.9%의 일일 소득이 1.9달러를 하회하는 최빈국이며,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한편, 북부 카보 델가도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테러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주요 성장동력인 LNG 사업개발도 지연 중임.